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다 갈 이
※ 교 독 문 15(시편 27편).....	다 갈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96장(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정연태목사 2부 박홍만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살아계신 주”.....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 이 민족위에 참 평화를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빌립보서 2:5-8	김애자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 최세열목사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455장(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다 갈 이
봉 헌 (10 구역).....	다 갈 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구역별모임 1:50분까지 분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 구역별예배와 친교로 모이겠습니다.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에베소서6:10-20 말 씀 / 최세열목사 “신앙의 무장을 하십시오”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시편강해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8시 합침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오복실 안복선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원혜경집사	
	현금위원	4월 심문자 김종천 홍강의 인민숙 5월 박기환 정선례 김귀례 송영임	다 음 주 성경봉독	2부 강항구장로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1부 말 은 이	
	헌신찬양	금주 10 구역	다음주	2부 한옥자권사	오복실권사
				예배사역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 빌립보서 2:5-8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질서에 감탄하고 순종하게 되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연이 아름답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성도의 모습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5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의 초종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엡4:13)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잣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잣대로는 하늘을 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1.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비움이란 자신의 위치, 소유,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움과 포기가 없다면 사랑이나 겸손은 언어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통치, 다스림,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나 자신이 가진 기득권의 잣대를 버리고 이 비움의 영성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2.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7절). 주님의 성품과 삶이 온전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8절).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일생을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죄인들의 친구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낮아짐의 영성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가는 비밀은 오직 낮아짐의 영성, 곧 겸손에 있습니다.

3.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낮아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이란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고 또 따르기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고후1:19). 그러므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비움과 낮아짐과 복종의 영성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경건함은 그것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바지랑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비움과 낮아짐과 복종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5: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4/29 제1과 선교란 무엇인가?(마태복음 4:23-25절)

말씀 살피기

예수님은 삼십 세 쯤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눅3:23).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후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 속에 선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이 과의 성경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창기 활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활동이 곧 선교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선교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며, 선하게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고 값지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하셨습니다.

둘째, 선교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롬 1:16).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16>”고 하셨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셋째, 선교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 경제적 빈곤, 재난, 억압, 부당한대우가 그것입니다. 선교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기쁨과 희망 속에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인권운동, 정의구현 등도 선교의 일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선교는 교육, 복음전도, 섬김, 봉사 등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며, 구원받게 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적용

1.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어봅시다.
2.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 후 당회로 모입니다(오후1시 당회장실).
2. 오늘 찬양예배는 각 구역별 예배와 친교로 모입니다. 1시 50분까지 본당에 모여 찬양과 기도 후에 구역별로 모이겠습니다.
3. 다음 주일은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4. 어린이 주일에 유아세례를 베풁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김인순 양석임 김근중 주종임 정선례 정연태 신민선 방옥남 양희임 최임춘 강진숙 안복선 김애경 박세일
- 감사헌금 : 김동현 오명숙 이유선 김지환 김옥길 여순애 심문자 양석임 김혜경 무 명 (생일) 박세일 (일천번제) 이병각 인민숙 김동현 김지환 한진현 한재현
- 건축헌금 : 안복선 김애경 김옥길 여순애 심복례 최승만 정선례 방옥남 박세일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김귀례	3	15,000		교 회	7	이영선	김홍영					교 회
2	정정희	김한순	김영숙	3	12000		교 회	8	김순남	오복실	허 웅	4	22,000	60	교 회
3	이춘호	함경숙	교 회	3	11,000	50	교 회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5	21,000	100	교 회
4	김기희	김경희	김정민	5	14,000	27	교 회	10	장영분	노순영	노순영	3	13,000		교 회
5	이문순	원혜경					교 회	계				26	108,000	237	
6	류중란	김애자					교 회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1:00	도 서 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독일이 아직 통일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였던 동독 사람들은 한 밤 중에 베를린 장벽을 통과해 쓰레기나 선전물을 종종 던졌습니다. 서독의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까 고심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돌려주자는 안도 있었고, 적법 한 절차를 걸쳐 항의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것 이 상으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런 안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가 투척된 다음 날 오히려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쌓아 동독의 장벽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은 팻말을 꽂아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주지 못한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어주고, 나쁜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나쁜 것들을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무릎 꿇은 나무

캐나다 로키산에 무릎 꿇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라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마치 무릎 꿇은 것처럼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의 소리가 워낙 고와서 고가로 팔립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명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온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짐을 내릴 때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원전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17호 2018.4.29.

부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방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으나 제자들이 갈 곳을 몰라 방황했듯이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로서 가야할 곳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갈릴리는 소외된 자들의 삶의 자리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분명히 깨달아 더 이상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취해 그것만을 만끽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무덤 속에 머물러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답임특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연태특사 지휘: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